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믿음, 일치를 향한 모험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주 현 후 4주일 】

인도 1부 : 김재훈 목사
2부 : 이재훈 목사

- 전 주 반주자
-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10. 전능왕 오셔서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새 힘을 불어넣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올 한 해, 힘찬 걸음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때론 땅만 보며 걷느라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한 삶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주님 사랑을 잊고 결길로 빠졌었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심긴 생명의 씨앗을 틔우고 싶습니다.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사 43:18~19 인도자
- ▲ 교 독 문 39. 시편 95편 다 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 2부 대표기도 김기석 목사
- 2부 응 답 송 찬양대
- 2부 찬 양 430.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 함께
- ▲ 성경봉독 고전 16:13~18 1부: 인도자/2부: 한성건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 독 자
다 합 께

찬 양	I. 하늘 소망	마중물찬양대
	II. 여호와와 나의 힘	청파찬양대
말 씬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들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 찬 양	510. 하나님의 진리 등대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선 ‘깨어 있어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사랑의 삶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초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우리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려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선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셨듯이, 우리도 어둠을 밝히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 빛으로 세상 곳곳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낫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추운 겨울에 만난 사람

- 날이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彫也
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야

...

어느 겨울, 공자는 길을 걷다 눈 덮인 송백(松柏)에 유독 눈길이 갔다. 무성했던 잎을 떨군 겨울나무. 송백이 겨울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며 공자는 만감이 오갔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어제인가 싶더니 겨울이다. 송백의 가지에 쌓인 눈을 털어내었다. 눈발이 후드득 꽃잎처럼 떨어졌다. 설경 속의 송백 앞에 서니 추운 시절을 함께해온 사람들과 제자들이 떠올랐다. 동고동락했지만 뜻하지 않게 헤어지거나 길을 달리해 떠난 이들이 있었다. 그때마다 공자는 마음을 다독이곤 했다. '그래, 다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겠지. 그래도 뜻을 같이한 이들과 울력으로 지금까지 길을 만들어올 수 있지 않았는가,' 다만 공자는 힘든 시절 도와준 이들을 찾지 못한 회한에 가슴이 시려왔다.

...

추사는 제주도 유배 후 공자가 세한송백(歲寒松柏)을 말한 구절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유배 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말에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는가. 공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의 불우(不遇)에 자신의 가혹한 운명이 겹쳐졌다. 공자는 왜 송백 앞에 멈추어 서서 송백이 뒤늦게 시든다고 했는가. 훗날 학자들은 뒤늦게 시든다는 것은 시들지 않음을 뜻한다고 했다. 추사는 이어붙인 거친 종이에 마음속에 맴돌던 송백을 갈필로 그려갔다. 허름하기 짝이 없는 집 한 채를 무늬처럼 새겨 넣었다. 미동도 없는 화면에 천천히 나무 네 그루가 채워졌다. 그림을 다 그린 추사는 굳센 붓끝으로 발문을 써내려갔다.

“태사공(사마천)이 『사기』에 이르기를 ‘권세와 이익으로 합친 자들은 그 권세와 이익이 다하면 사귀어 시들해진다’고 했네. ... 성인이 특별히 일컬었던 것은 단지 늦게 시드는 곧은 지조와 굳은 절개 때문만이 아니라, 또한 날이 추울 때 감동한 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일세. 아! 서한(西漢)의 순박했던 시절에 급암(汲黯)이나 정당시(鄭當時) 같이 훌륭한 사람들도 찾아오는 빈객의 수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했네. 심지어 하비(下邳)의 적공(翟公)이 문 앞에 방(榜)¹⁾을 써 붙였던 일은 박절함이 지극했던 것이니, 슬프구나! 완당 노인이 쓰다.”

(제자) 우선(藕船)은 무릎을 꿇고 스승 추사가 보낸 세한도(歲寒圖) 한 폭을 천천히 펼쳤다. 움막 같은 집 한 채, 나무 네 그루. 황량하기 이를 데 없는 풍경. 스승의 마음을 보는 것 같았다. 발문을 다 읽고 난 우선은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다. 추사는 우선을 만나 추운 날을 견뎌고, 우선은 이해관계로 물든 만남[市交]이 아닌 진정한 마음의 만남[神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주님은 우리가 바닥에 내려가 세상으로부터 버려졌을 때, 외로움으로 몸부림칠 때 찾아와주셨다. 그리고 변함없는 친구가 되어 주셨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세상에서 병들고 다친 자, 상처 입고 소외된 자와 함께 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낀다.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당신의 품 안으로 감싸주신 주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 주님은 자신이 의인인 줄 모르는 의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 25:35-36)

- 임중수, 「그리스도인의 논어산책」 (동연) 중에서

1) 한번 죽었다가 한번 살아남에 사귀는 마음을 알게 되고
한번 가난해지고 한번 부유해짐에 사귀는 태도를 알게 되고
한번 귀해지고 한번 천해짐에 사귀는 심정을 알 수 있다.

사소한 물음들에 답함

송경동

스물여덟 어느 날

한 자칭 맑스주의자가 새로운 조직 결성에 함께 하지 않겠냐고 찾아왔다.

애기 말엽에 그가 물었다.

그런데 송 동지는 어느 대학 출신이요? 웃으며

나는 고졸이며, 소년원 출신에

노동자 출신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순간 열정적이던 그의 두 눈동자 위로

싸늘하고 비릿한 유리막 하나가 쳐지는 것을 보았다.

허둥대며 그가 말했다

조국해방전선에 함께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라고.

미안하지만 난 그 영광과 함께 하지 않았다

십수 년이 지나 요 근래

어는 조직에 가입되어 있느냐고 묻는다

나는 다시 숨김없이 대답한다

나는 저 들에 가입되어 있다고

저 바닷물결에 밀리고 있으며

저 꽃잎 앞에서 날마다 흔들리고

이 푸르른 나무에 물들어 있으며

저 바람에 선동당하고 있다고

없는 이들의 무너진 담벼락에 기대 있고

걸어 채인 좌판, 목 잘린 구두

아직 태어나지 못해 아메바처럼 기고 있는

비천한 모든 이들의 말 속에 소속되어 있다고

대답한다. 수많은 파문을 자신 안에 새기고도

말없는 저 강물에게 지도받고 있다고

헌금 영수기

십일조 및 월정헌금

장세기 이소애 권미정 김금순 김기석 김희우 김나름 김남종 오복순 김미숙 김성순
 김수진b김승현 김수진a김영읍 김인걸 문영혜 김인숙 김일량 이은옥 김정린 김정민
 이해령 김정수 정자현 김정한 김종성b서이순 김호식 최원영 남윤경 문홍일 박경원
 박규석 박경선 박범희 박미영 박소현 장병준 박영희 박해숙 방문성 방민방준
 배삼순 변희영 사은기 서수진 서혜원 신동완 신미라 심창현 심혜성 안종일 정현주
 안지민 안현숙 왕수명 우순덕 유성애 유영남 유중희 유태한 유예나 윤영미 이동천
 이시경 이완구 이윤범 나지선 이재훈 이종후 이지원 임당재 이수경 임선자 임영
 정경례 장기풍 장동훈 정은선 장영숙 전병호 이은주 전찬익 이은자 정병옥 이수민
 정영우 김지윤 정은영 정택중 정현숙 조병무 송양진 조성일 조소영 최승주 조호진
 최윤화 최철수 광권희 최희영 추현영 한상익 정영선 한지원 홍예선

감사헌금

권성연 김나름 김남종 오복순 김은주 김태정 김향자 나영란 박영옥 박재영 이현정
 방종미 서병원 서한이 성광수 신동완 안현호 이광석 이경희 이덕규 이돈섭 이상도
 이현민 임설희 임중수 임채진 이영희 임진섭 임혜진 장영숙 장현희 조성래 최예주
 최철수 광권희 허명선 무명6

녹색꿈헌금

권미숙 김호연 김주미 윤석영 이재삼 전정현 최형경 노진래 무명1

예배 및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아부예배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예배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예배	10:5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중고등부예배	10:50	중고등부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일·월 쉼)
1청년부모임	13:30	지하다목적실			
2청년부예배	14:00	청년회실			

교회소식

1. 동교회 : 오늘 오후에 동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2. 간담회 : 각 동교회 총무 간담회가 오늘 오후 1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3. 교역자회의 : 중구용산지방 교역자회의가 4일(화) 오전 7시에 청파교회에서 열립니다.
4. 신앙실천 : 개인위생과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 쓰시다. (자주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악수하지 않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호흡기 증상자는 마스크 착용 등) 그러나 과도하게 염려하는 마음과 혐오하는 마음은 삼갑시다.

	설교본문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다음주	삼상 24:16-22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김재홍
		2부 김기석	박범희	박영신	이재훈
2월	1부 영접위원	김정우	헌금위원	이부용	
	2부 영접위원	하현철 박재영	한상균 이현순	김해선 최은미	
	2부 헌금위원	곽권희 황현성			
식당봉사	오늘	이소애 이소혜 박유경 김지현 김해선 남인자 강세기 김성우			
	다음주	박홍재 김태정 김영희 안미순 오연훈 서정임 박상규 조두희			
설거지봉사	5여선교회 (오늘)	3여선교회 (다음주)	커피봉사	4남선교회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교회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